

2014년 5월 12일 월요일

날이 차다. 바람도 불고 햇빛도드는 봄의 날씨

평소와 다른 아침이었다. 전날 잠을 설치는 바람에 눈뜨는게 가볍진 않았지만 1교시 가 첫수업이 아니라 여유로운 마음이 앞서 늦장을 부렸다. 아침에 우리집에 오기로 했던 흥비 에게서는 보미랑 있다는 집안 안와도 될거같다는 내용의 카톡이 와있었다. 눈 비비고 정신좀 차리고 재훈이한테 전화를 걸었다. 아침인사를 나누고 통화를 마친뒤 샤워를 하고 학교에 갈 준비를 했다. 웬일인지 기분이 조금 들떠있었다. 그렇게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수업 주제가 암,자궁근종 이런 내용이였다 솔직히 그렇게 듣기 싫은 수업은 처음이었다. 다들 가벼운 수업내용 이겠지만 나한테 썩 가볍지 않은 내용이라 옆드려있었다. 문 열고 나가고싶은 마음이 든 찰나에 수업이 끝났다. 은영이랑 학생식당에서 라면을 먹고 졸업사진을 고르고 예정대로 라면 친구들은 집에 가고 난 혼자 자취방으로 왔어야 하는데 오늘은 은영이 생일이라 술약속이 있는 관계로 다 같이 우리집으로 향했다. 중간에 흥비랑 보미는 케이크를 사러 시내로 나가고 은영이랑 둘이 집에서 휴식을 취했다. 오후 6시정도 됐을 무렵에 다 같이 노래방에 가려고 나왔다.다들 배가 너무너무 많이 고파서 힘이 없는 관계로 30분을 채 남겨두고 술집으로 갔다. 은영이 생일이라 별주로 500cc 두잔 가득 술을 맥이고 그렇게 은영이는 기억을 잃었다..후 정말 그렇게 재미없고 맛없는 술자리는 오랜만이었던거 같다. 중간중간 재훈오빠랑 연락도 하고 눈이랑 머리 아파서 정신도 없고 집가서 오빠랑 전화통화 하면서 자고싶은 마음만 굴뚝같았다 그러다가 혼자 집에 가서 오빠랑 전화하구 케이크 들고 다시 술집으로 가려던 순간 술자리 끝났다고 집으로 오겠다고 연락이 왔다. 다들 집으로 돌아와서 치킨시키고 정신 하나 없는 은영이 깨워서 촛불 불라하고 그렇게 끝났다. 돈도 돈대로 들고 속은 속대로 버리고..나는 아직 어려서 그런지 술이 정말 싫고 술자리도 썩 좋지는 않은 것 같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술자리가 찾아올진 모르겠지만 말이다... 그래도 친구들이랑 이런 저런 얘기 많이 나누고 뜻깊은 시간 보낸거같아 즐겁고 은영이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든다. 아 참, 그리고 오빠한테 꼬장부렸는데도 귀염둥이~ 해줘서 기분 좋았다. 오늘의 일기 끝~~~